

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

평가원이 최근 현대사에서 출제하는 지문들의 양상을 보면 쉬운 듯?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.

쉽게 말해 주제를 찾기 힘든 현대사가 대부분.

이 경우는

1. 나라면

기억하자.

나라면 왜 저 상황에서 저런 이야기를 할까.

하늘과 돌맹이를 보면,

그냥 자연 묘사로만 보이지, 별 생각, 정서가 보이질 않는다... 뭐지?

싶어서 보면, 아! 관점을 달리하겠다는 의도구나!

비슷한 현대사는?

앞으로 볼 우포늪 확산 역시

나의 상상 - 우포늪 확산 - 소리꾼에 대한

휴전선 - 분단 조국과 대비되는 자연

현대시. 이 지문은 꼭 보고 가자

[43~45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자연물 = 인공물
 낙엽은 폴 - 란드 망명정부의 지폐
 포화(砲火)에 이르러진
 도룬 시(市)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
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베타처럼 풀어져
 일광(日光)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
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
 새로 두 시의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
 포플라 나무의 근골(筋骨) 사이로
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
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
 그 위에 세로팡지(紙)로 만든 구름이 하나
 자욱 - 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
 호몰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
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
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
 고독한 반원을 굶고 잠기어 간다

허무함 + 부정적 인식
 전쟁. 나라망함
 장면묘사
 음울
 특이함
 상황
 도시. 문물 비판
 정서
 -김광균, 「추일서정」- 시간

(나)
 묘사 담쟁이덩굴이 (가벼운) 공기에 업혀 허공에서
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
 반대인식
 통념: 담쟁이덩굴 스스로 성장 주제: 업혀: 보살핌 받는 존재

묘사 새가 푸른 하늘에 (눌러) 납작하게 날고 있다
 자유X 부자유. 극복의지
 들쭉레가 길 밖에서 하얀 꽃을 버리며
 빈자리를 만들고
 의지X → 의치O
 어색하게 낯설게 하기
 사방이 몸을 비워놓은 마른 길에
 하늘이 내려와 누런 돌멩이 위에 없힌다
 돌멩이 + 하늘 가까움
 주제
 자연물 묘사 + 특이한 인식

자기 몸 위에 놓아두고 있다
 -오규원, 「하늘과 돌멩이」-

신유형
 43. (가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 ①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.
 ② 유사한 문장 형태를 변주하여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.
 ③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.
 ④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.
 ⑤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어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.

44. 다음은 (나)에 대한 <학습 활동> 과제이다. 이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낯설게

<학습 활동>

「하늘과 돌멩이」는 사물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들을 바라보려고 시도한다. 각 연의 서술어에 주목하여, 이 시에 나타난 새로운 관점을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과 비교하여 탐구해 보자.

	사물	사물에 대한 고정관념	서술어	새로운 관점
1연	담쟁이덩굴	담쟁이덩굴은 벽에 붙어 자란다.	업혀	㉠
2연	새	새는 자유롭게 하늘을 난다.	눌러	㉡
3연	들쭉레	들쭉레의 꽃이 떨어진다.	버리며	㉢
4연	하늘	하늘은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.	없힌다	㉣
5연	모래	모래가 바위 밑에 깔려 있다.	들어올려	㉤

보살핌 가능
 업힘 : 보살핌 대상

① ㉠ : '업혀'에 주목하면, 담쟁이덩굴은 벽에 붙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누르며 수직 상승하는 강인한 존재로 볼 수 있다. 문학적 관습 철학 언어논리X
 ② ㉡ : '눌러'에 주목하면, 새가 아무 제약 없이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무게를 견디며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. 의지O
 ③ ㉢ : '버리며'에 주목하면, 꽃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쭉레가 스스로 꽃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 ④ ㉣ : '없힌다'에 주목하면, 하늘은 땅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길에 가깝게 내려와 돌멩이 위에 닿는 존재로 볼 수 있다.
 ⑤ ㉤ : '들어올려'에 주목하면, 모래는 바위 밑에 깔려 있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거대한 바위를 지탱할 수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다.

45. 이미지의 활용을 중심으로 (가)와 (나)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(가)는 '낙엽'을 '망명정부의 지폐'에 연결하여 낙엽의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군. 호율로
- ② (가)는 '돌팔매'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미지를 '고독한 반원'으로 표현하여 외로움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.
- ③ (나)는 '빈자리'를 '들쭉레'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대상인 것처럼 표현하여 비어 있는 공간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고 있군.
- ④ (가)는 '길'을 '구겨진 벵타이'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도시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을 표현하고 (나)는 '갈 땀'과 '갈 한권'처럼 중심에서 벗어난 공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들 간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군. 호율로, 고독한
- ⑤ (가)는 '허공'을 '황량한 생각'이 드러나는 공허한 이미지로 활용하고 (나)는 '담쟁이덩굴'의 움직임에 활용하여 '허공'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군.

시선이전